

##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The Teachings of Confucius

마성호 / (주)엠펙종합건축사사무소,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by Ma Sung-Ho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현실세계의 속도감은 어느 타분야를 막론하고,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매년초에는 새로운 신년의 다짐과 목표의 설정, 더불어 한해를 구상하는 신선감으로 충만해진다. 하나,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속에 한해를 돌이켜보며, 그 시간의 무심함을 다시한번 배우고 또 그 속 공간속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94년부터 불어닥친 건축계의 이슈들, 건축교육과 인증에 관한 무성한 논란과 제도에 관한 대비·규정들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 서있는 우리 건축사들....., WTO 협정서명의 출발에서부터, 또는 뒤늦게 밝혀지기 시작한 서비스 무역의 국가간 완전 자유화 시점의 다가움이 바로 우리를 그 시간속에 존재시키며 점점 많은 시점 공간을 점유시키고 있다. 굳이 다시 끄집어 내지 않더라도 AGP, GATS, UIA 등의 협정에 대한 진행 과정들이 건축사의 자격, 건축 교육 그리고 건축 실무에 관련되는 쟁점들은 벌써 많은 변화를 주었고,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유 경쟁과 자율화라는 목표로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학 전공제의 학제 개편 등 소위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건축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질을 갖는 건축사를 양성하는 일이 변화된 제도속에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시간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속에 이미 기존의 질서와 원칙들은 재편되어 간다. 여기에 세계 시장이라는 큰틀속에 건축계라는 전문가 범주가 앞으로 현상화 되어질 경제적·문화적 논리의 특질이 어떤식으로 대응되어지리라는 것은 쉬운 예견은 아닐 것이다. 제도와 인증, 주관이나 주체 등 변화속의 선행 키워드가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한 정체성 논의나, 건축시장의 주류나·비주류나 등에 관한 논의로 쟁점되는 집단의 논쟁보다, 더욱 변화속에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과연 어떤식의 교육과 배움의 자질을 갖느냐는, 그런 실제적인 본질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건축사들은 새로운 건축사들과의 조화속에 현실의 건축계를 구성한다.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할 건축사들은 새로운 건축사를 어떤식으로 기대하며 그 조화를 가꾸어야하나, 학제는 5년제 대학의 출범으로 인해 커리큘럼의 질과 양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학 교육 또한 실무와의 연계 강화된 제도속에 많은 능력 있는 건축사들이 대학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교육제도는 실무와의 연계 프로그램강화로 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비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학부 커리큘럼내에서 또는 워크샵이나, 건축사들의 건축학교 스튜디오, 전문대학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치들에서 실무를 하는 건축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사들의 대학 건축 교육의 참여가 과연 효율적이며, 실제 그 본질 가치에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는 특성화 된 각 제도속에 평가를 맡기자. 그 평가는 수많은 변화시간속에 우리 제도들은 이미 몰입하며, 또한 새롭게 변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교육은 제도와 장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것이다. 교육은 학교에만 맡기고, 실무에서는 받아들이기만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건 아주 오래된 숙제이자 현실이다. 교육과 자질에 대한 문제가 변화되는 현실속에 대두된 이 마당에 실무 예비건축사들과 건축사들의 교육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배우기만하고 생각하여 자기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하고 보편적인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 독단에 빠지기 쉽다.

지식과 사고의 경험에 대한 가르침은 참으로 큰 가르침일 것이다. 규범을 중시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화합과 자주성에도 그 교육의 가치가 있다. 경험에 의한 선례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물론 문제가 있다. 경험적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울 때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가지를 어떻게 융화시키느냐가 가장 어려운 점이다.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실무 교육을 하자는 논의 이전에 실무로 이끌 예비 건축사들의 실무교육은 단순히 사무실 스템으로서의 역할 부여보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행태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현장 학습법인 구안법, 역할학습, 견학학습, 발견학습, 실험학습 등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이 실무역할과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스템들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모르거나, 자신의 역할이 사무실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못 느끼고, 자신이 한 일에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모르는 일이 있다. 실무학습은 별개의 교육체계가 아닐것이다. 실무역할의 교육책임은 우리 건축사에게 있다. 보다 자질있고 능력있는 경쟁력있는 건축사를 우리들이 원한다면, 내적 교육을 통한 실(實)건축사를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글을 다시 새겨본다.

“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취를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의 눈을 의식한 학문을 한다. ㉮